

존 칼빈의 신학방법론으로서의 성경극중주의 : 양비론(兩非論)과 양시론(兩是論)을 오가는 ‘이중개념주의’와 ‘복잡성의 중도’ 사이에서

전대경

Ⅰ 평택대학교, 조직신학 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복음주의 신학방법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칼빈의 신학방법론으로서 성경극중주의를 제시한다. 규명하려는 것은 칼빈의 신학방법은 성경극중주의라는 것이다. 먼저, 중도에 대한 정치학적 개념인 ‘이중개념주의’와 ‘복잡성의 중도’, 그리고 인지언어학적 개념인 ‘개념 혼성’에 대해서 살핀다. 다음으로, 칼빈의 성경극중주의 방법론을 다룬다. 그 다음으로, 문자적 해석과 은유적 해석 사이에서 있는 칼빈의 이중개념주의적 극중주의 성경해석 방법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성령 은사에 대한 칼빈의 모호성과 복잡성의 중도적 해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칼빈의 중도 신학방법론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중심을 잡는 변증법적 ‘개념 혼성’으로서의 성경극중주의라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칼빈의 성경극중주의 신학방법론은 이중개념주의적 복잡성의 중도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칼빈은 성만찬, 국가론, 은사론 등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칼빈의 이러한 극중주의 방법론은 때로는 중립에서 좌측과 더불어 우측에 대해 걱정적으로 싸웠고 때로는 중립에 있으면서 우측과 더불어 좌측에 대해 걱정적으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상대의 단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장점을 흡수하고자 하는 비판적 수용의 자세도 보인다. 이러한 칼빈의 이중개념주의적 극중주의는 말쑥에 중심을 두려고 했지 세상의 좌우 진영 가운데 서려고 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는 칼빈의 신학방법이 중도라는 주장을 단순히 부연하기 위함이지 아니며,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하고자 함도 아니다. 오히려 이 둘을 뛰어넘어 칼빈주의 신학이 중도주의라는 주장에 대한 옹호론과 비판론을 종합하고자 한다. 그래서 칼빈에게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하지만 다소 모호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중도주의적 신학방법을 더 구체화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치학적 용어인 극중주의라는 말을 차용하여 성경극중주의라는 새로운 개념(개념혼성, conceptual blending)으로 칼빈의 신학방법을 표현한다. 중도주의는 그 모호성으로 인하여 이중개념주의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도에 대한 비판적 용어들을 성경극중주의의 장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차용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말쑥에 그 중심을 두지 못하고 신학적 성향과 정치적 성향을 서로 혼동하여 이를 등치시켜 오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가, 말쑥에 뿌리를 깊이 내려 그 중심을 잡고, 때로는 우측에게 선지자적 사명으로 비판을 하며, 때로는 좌측에게 제사장적 비판을 하는 칼빈의 성경극중주의가 한국 개신교 교계와 신학계에 뿌리내리게 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중도, 칼빈, 신학방법, 극중주의, 성경극중주의, 개념혼성, 이중개념주의

I. 머리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6절, 개역한글)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중도의 방법’(Via Media)을 선택했다.¹ 극우(Far Right/Radical Right)가 ‘극도로 우측에’ 그리고 극좌(Far Left/Radical Left)가 ‘극도로 좌측에 서려고 한다.’는 말인 것처럼, 극중주의(Radical Centrism)란 ‘극도로 중간에 서려고 한다.’는 말이다.² 그래서 성경극중주의(Biblical-Radical Centrism)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철저하게 그 중심에 두고 살고자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칼빈의 신학원리 혹은 신학방법론으로서 중도(Via Media)가 이미 국내외에서 종종 소개 되었다.³ 이는 중도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자 하는 이러한 그의 신학방법이 그의 성경해석, 성령론, 성만찬론, 국가론 등에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칼빈은 때로는 양극단을 모두 부정하는 양비론적 입장을, 때로는 양극단 모두를 긍정하는 양시론적 입장을 취한다.⁴ 이러한 그

1) 안인섭,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연구 -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과 아브라함 카위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30 (2011): 203.

2) Richard Hoefer, “Social Welfare Policy and Politics,” in *Comprehensive Handbook of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Volume 4: Social Policy and Policy Practice*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8), 335.

3)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박경수와 김재성, 안인섭이 있고, 해외에는 부스마(William J. Bouwsma)와 배틀즈(Ford Lewis Battles), 갬블(Richard C. Gamble) 등이 있다.

4)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주석』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양극단을 비판하는 양비론이 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때로는 칼빈 스스로도 자신이 비판하는 입장의 반대편의 논리를 수용하면서 비판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양시론의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가령, 칼빈은 오리겐(Origen Adamantius, 185-254)의 알레고리 해석

의 성경극중주의는 ‘복잡성의 중도’(Complexity of *Via Media*)와 ‘이중개념주의’(Biconceptualism)⁵라는 다소 중도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들의 ‘개념혼성’(Conceptual blending)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이러한 ‘성경극중주의’ 신학방법은 복음주의 신학의 방법론적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 개혁주의는 칼빈 신학과 칼빈의 신학방법을 그 정체성의 중심에 둔다.⁶ 그리고 복음주의는 중도 우파적인 개혁주의가 신정통주

을 비판하면서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옹호한다. 그리고 재세례파의 지나친 문자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영적인(알레고리) 해석을 옹호한다. 표면적으로는 오리겐의 알레고리적 해석과 재세례파의 문자주의적 해석을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적 입장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양쪽 모두를 받아들이는 양시론적 입장을 보인다. 마치, 침례교가 구원론에 있어서 그 시작은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비판하고 구원의 확정성에 대해서는 웨슬리안주의적 ‘성도의 타락 가능성’을 비판함으로써 양비론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원의 시작은 웨슬리안주의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정성은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므로써 양시론적인 입장을 보인다.

- 5) George Lakoff, *Don't think of And Elephant* (White River Junction, Vermont: Chelsea Green Publishing, 2014)을 참조하라.
- 6) 개혁주의 신학의 중도우파적 성향 때문에 자연스레 칼빈의 신학방법이 중도(*Via Media*)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한 예로, 헤르만 셀더르하위스(Herman J. Selderhuis)가 있다. 셀더르하위스는 칼빈과 루셀 간에 있었던 일화를 한 예로 든다. 칼빈은 파리에서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제라르 루셀(Gérard Roussel)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다. 루셀이 주교가 될 기회가 왔을 때, 칼빈은 자신의 친구가 주교가 되어 자신의 개혁운동을 많이 도울 수도 있지만, 그 친구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반성정적인 일들도 해야 할 것을 알았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 친구로 하여금 가톨릭에서 나올 것을 권유했고, 친구가 설득되지 않자, 결국 절교하고 만다. 이 일화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셀더르하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칼빈을 “중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no in-between, no *via media*)”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칼빈은 이 모든 말을 근심스럽고 신랄한 어투로 전하고 있다. 칼빈에게 중간지대는 없었다. 칼빈은 모든 일에 있어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루셀이 가톨릭에 남기로 결정했을 때, 칼빈은 이제 그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all of this, Calvin's tone is that of a person who has become very sharp in his anxiety; the content of what he has to say is that of one who sees no in-between, no *via media*. For him these were matters of black and white, and when Roussel chose to remain Catholic, Calvin believed they could no longer remain friends.” Herman J. Selderhuis, *John Calvin: A Pilgrim's Lif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9), 49f. 번역본으로는 조승희 역, 『칼빈』(서울: 대성닷컴, 2009), 74f을 보라.

의와 더불어 웨슬리안과 오순절을 포용하고자하는 일종의 좌클릭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반대로 후자의 우클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복음주의는 의도적으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양 극단의 사이에 서려고 하며 그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운동이기도 하다.⁷⁾ 그래서 복음주의의 애매모호한 정체성에 대해서 소위 ‘복음주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회의적인 학자들도 있는 반면,⁸⁾ 복음주의의 좌측 극단 혹은 우측 극단에 있으면서도, 자신들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다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라는 뜻대 아래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서고자 하는 학자들과 교파들도 있다.⁹⁾

본 연구는 복음주의 신학방법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칼빈의 신학방법론으로서 성경극중주의를 제시한다. 규명하려는 것은 칼빈의 신학방법은 성경극중주의라는 것이다. 먼저, 중도에 대한 정치학적 개념인 ‘이중개념주의’와 ‘복잡성의 중도’, 그리고 인지언어학적 개념인 ‘개념혼성’에 대해서 살핀다. 다음으로, 칼빈의 성경극중주의 방법론을 다룬다. 그 다음으로, 문자적 해석과 은유적 해석 사이에서 있는 칼빈의 이중개념주의적 극중주의 성경 해석 방법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성령 은사에 대한 칼빈의 모호성과 복잡성의 중도적 해석을 다룬다. 이를 통해, 칼빈의 중도 신학방법론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중심을 잡는 성경극중주의라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7) 이러한 복음주의의 정체성 문제와 관하여는 Stanley J. Grenz, *Revisioning Evangelical Theology: A Fresh Agenda for the 21st Century* (Downers Grove, IL: IVP, 1993), 전대경 역, 『복음주의 재조명』(서울: CLC, 2013)을 참조하라. 특별히, 서문과 1장 “복음주의 정체성 재조명”을 참조하라.

8) 한 예로, Donald W. Dayton, “Some Doubts About the Usefulness of the Category ‘Evangelical,’” *The Variety of American Evangelicalism*, eds. Donald W. Dayton and Robert K. Johnston (Downers Grove, IL: IVP, 1911), 251을 참조하라.

9) 자신의 교단 및 교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혹은 정치적 신학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학적 입장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복음주의(혹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경우도 있다. 우측 극단에는 성서침례교, 좌측 극단에는 오순절 교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는 엘리트 정치집단들에 의해 이념적 양극단의 패러다임화에 간혀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상황에, 말씀에 중심을 두고 때로는 우측에 선지자적 비판을 가하며, 또 때로는 좌측에 제사장적 비판을 하는 빛과 소금된 교회의 참된 역할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이중개념주의’와 ‘복잡성의 중도’를 넘어서는 극중주의 방법론

‘중도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는 이념적 기회주의’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¹⁰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에 따르면, 이 세상에 중도주의는 없으며, 이중개념주의만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중도주의자들은 자신이 온건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끼리도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다.

중도 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의 도덕적 체계나 그 정치적 입장을 명료히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중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개 이중개념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어떤 사항에는 보수적이며, 다른 사항에는 진보적이다.¹¹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좌파적 성향을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우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레이코프는 이중개념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좌파와

10) 한 예로, 다음을 보라. James MacGregor Burns & Georgia J. Sorenson, *Dead Center: Clinton-Gore Leadership and the Perils of Moderation* (New York: A Lisa Drew Book, 1999), 167.

11) “There is no ideology of the middle. There is no moral system or political position that defines the “middle.” The people in the “middle” are largely biconceptuals, people who are conservative on some issues and progressive on others, in all sorts of combination.” Lakoff, *Don't Think of And Elephant*, 18.

우파 정당에서는 이러한 중도우파 혹은 중도좌파적인 이중개념주의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한다.¹² 레이코오프는 좌우 진영의 ‘이상적 인간형’(ideal person)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이중개념주의자들의 애매모호한 ‘이상적 인간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꼬듯이 묘사한다.

이상적인 인간형은 어떤 모습일까? 보수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은 서로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다. 특히 도덕성에 대해서 그렇다. 이중개념주의자들은 이들과는 또 다른 견해들을 가진다. 보수적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이중개념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의 도덕관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진보적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이중개념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의 도덕관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혹은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이중개념주의자들은 아마도 도덕적인 사람은 바로 자신들 스스로와 같아야 한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¹³

아르네 라즈무센(Arne Rasmusson)은 이러한 ‘좌파와 우파만 존재할 뿐 중도는 없으며, 단지 이중개념주의만 존재할 뿐’이라는 레이코오프의 주장

12) Lakoff, *Don't Think of And Elephant*, 53.

13) “What should an ideal person be lik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have largely opposite view, given their different views of morality. Biconceptuals have different views as well, depending on how their moral views are divided up: biconceptuals who are largely conservative will tend to have a conservative view of what people should be like, and biconceptuals who are largely progressive will tend to have a progressive view of what people should be like. Or, biconceptuals that are less extreme may believe that an ideal person is biconceptual in the same way they are, with the same distribution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views.” Lakoff, *Don't Think of And Elephant*, 44. 레이코오프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가족 모델로 설명한다. 전자는 엄격한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정으로 후자는 너그러운 포용적인 아버지로 대표되는 가정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를 정치로 확장하여 공화당을 우파적 리더십으로, 좌파적 리더십을 민주당으로 묘사한다. Lakoff, *Don't Think of And Elephant*, 41을 참조하라.

에 반대한다.¹⁴ 그는 ‘레이크오프가 자신이 반대자들에게 들이대는 엄정한 잣대를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과학이 종교와 정치의 최고 해결책이라는 레이크오프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래서 라즈무센은 레이크오프를 과학으로 구원을 이끌려는 세속적 정치 신학자라고 비평한다.¹⁵

김제완은 레이크오프가 ‘이중개념주의’라고 비판하는 중도를 ‘적극적 중도’ 및 ‘복잡성의 중도’로 극복하자고 주장한다. 김제완은 ‘이중개념주의’를 넘어 ‘적극적 중도’의 자세로 ‘복잡성의 중도’를 표현하고 옹호하는 방안으로 통계학 개념인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를 도입한다. 여기에서 ‘명목 척도’는 있고 없음의 개념이며, ‘순서 척도’는 많고 적음의 개념이다. 그래서 김제완은 이 두 가지 척도의 개념으로 중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⁶ 즉, 중도의 존재 자체 혹은 중도의 철학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은 중도를 ‘명목 척도’로 평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중도는 ‘순서 척도’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낙태’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전자의 명목 척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현 정부의 평화 및 안보 인식’ 등에 대해서는 분명 후자의 순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중도를 ‘명목 척도’로만 보려고 하는 이해는 좌우 진영의 이념적 프레임

14) Arne Rasmusson, “Science as salvation: George Lakoff and Steven Pinker as secular political theologians” in *Modern Theology* 28/2 (2012): 206.

15) Rasmusson, “Science as salvation: George Lakoff and Steven Pinker as secular political theologians” in *Modern Theology* 28/2 (2012): 221-224. Lakoff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Stephen Parsons, “Understanding the mind of the conservative Christian: the work of George Lakoff” in *Modern Believing* 55/3 (2014): 271-282; Robert Thomas, “Idea analysis of algebraic groups: a critical comment on George Lakoff and Rafael Núñez’s Where mathematics comes from” in *Philosophical Psychology* 15/2 (2002): 185-195.

16) 김제완, “‘이중개념주의’에 도전하는 ‘복잡성의 중도’”, 「프레스리안」 (2015.09.28.),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0061 (2018.03.12. 접속).

에 대중을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도를 설명하려면 먼저 양측 이념의 극단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윤성이에 따르면, 이러한 이념 갈등은 불필요하게 지나칠 정도로 확산되어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경쟁 자체가 많이 오도되었다고 본다.

이념갈등 속에서 사실 보수와 진보의 합리적 경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수구반동과 급진좌파의 극단적 대결만이 있을 뿐이다. 이들 극단논리의 충돌은 단지 선거나 정치적 사안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등 냉전구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야까지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윤성이는 “과연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의 실체는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¹⁷⁾라고 되묻는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이 실제적 내용에 비해 과장되어 부풀려져 있으며, 이러한 이념갈등의 원인은 정치권의 ‘편향성 동원(mobilization of bias)’¹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¹⁹⁾고 결론 내린다. 이렇게 볼 때에, 좌우 진영 사이에서 양측의 눈치를 보는 이념적 기회주의는 오히려 중도가 아닌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양 극단이 아닐까? 윤성이는 레이크오프가 이중개념주의라며 비판하는 ‘중도’가 오히려 더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역설한다.

시민사회의 대립구도가 합리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왜곡된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화되고 다층화 되어야 한다. 이념적 진보가 이데올로기적 좌

17) 윤성이,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4 (2006): 38.

18) 정치적 기득권자들이 지지자 동원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사회적 중심 갈등을 유발 시키고 특정 갈등을 부각시키려는 성향을 ‘편향성의 동원’이라 부른다. Lisa Jane Disch, *The Tyranny of the Two-Party Syste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110.

19) 윤성이,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4 (2006): 38.

파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이데올로기적 우파는 시장경제적 좌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 이해가 가능하고 적과의 대화와 타협도 기대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건강한 사회는 ‘이중개념주의’(biconceptual)라고 부르기 보다는 ‘창조적 갈등’을 유발하는 변증법적 종합으로서의 ‘개념혼성’(conceptual blending)²¹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사회 갈등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진보와 보수라는 왜곡된 이분법적 대립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이다...진보와 보수라는 추상적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 구체적 정책의 내용으로 토론하고 경쟁하여야만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갈등을 만들어 갈 수 있다.²²

칼빈의 성경극중주의(중도) 신학방법도 일종의 ‘이중개념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오히려 ‘개념혼성’이라고 보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이러한 성경해석학적 ‘개념혼성’은 변증법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형이상학을 형이하학으로 설명하는 것이다.²³ 즉, 하나님의 말씀을

20) 윤성이, “한국 시민사회의 갈등과 담론의 왜곡”, *OUGHTOPIA* 22/2 (2007): 66f.

21) A 개념과 B 개념을 혼합하여 C라는 새로운 상황 속의 개념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겨울에 산에서 볼 수 있는 ‘눈꽃’과 ‘팔빙수’를 혼합하여 ‘눈꽃 빙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는 것 등이다.

22) 윤성이,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4 (2006): 54.

23) 개념혼성을 성경해석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obert H. Von Thaden Jr., “Guiding socio-rhetorical commentary with conceptual integration theory (blending theory)” in *Conversations with the Biblical World* 31 (2011): 184-203; Blake E. Wassell & Stephen R. Llewelyn, “‘Fishers of Humans’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and Conceptual Blending Theory” i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3/3 (2014): 627-646; David Arthur DeSilva, “Seeing things John’s way: rhetography and conceptual blending in Revelation 14:6-13” in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8/2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기독교적 전통을 담아내어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는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다.

박경수는 이러한 칼빈의 극중주의 신학방법은 모순과 역설이 가득한 '복잡성의 중도'라고 과감히 말한다.

칼뱅은 그리스도교 계시와 경험의 복잡성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라면 논리적인 일관성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칼뱅의 역설의 사용은 그에 대한 모순적인 해석들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다.²⁴

김재성도 여기에 동의하여, 칼빈의 유일한 신학 원리로서 중도의 길(via media)을 제시한다. 이 '중간의 길'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때로는 양측을 비판하는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며, 양측의 장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키는 변증법적인 양시론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²⁵

III. 성경극중주의 해석 방법론

1978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칼빈연구 국제회의에서 배틀즈(Ford Lewis Battles) 박사는 “칼빈의 신학적 방법은 극중주의(true via media)”라는 글을 발표했다. 칼빈 사교의 모든 근본적인 개념들은 양측의 긴장, 즉 극단의 오류 사이에 있는 ‘중간 영역’ 안에서 정의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도의 방법”을 사용한 칼빈은 알레고리적 주석에 대한 혐오감을 적지 않게 표현한 바 있다. 그러한 성서주석 상의 남용은 극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2008): 271-298.

24) 박경수, “칼뱅의 통전적 신학방법론, Via Medi” 「장신논단」 34 (2009): 59.

25) 김재성, “칼빈 신학의 구조적 특성(II)”, 「신학정론」 12/2 (1994): 397-402.

는 것이다. 이러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갬블이 제공하는 도표의 모델에서 극좌에 위치한다.²⁶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친 성서해석을 갬블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모델의 가장 우측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진정한” 혹은 “더 진정한” 성서해석은, ‘오류’ 혹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성서해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알레고리적 해석과 인간적인 해석의 양극 사이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²⁷ 칼빈의 신학적 방법을 ‘중도’(via media)로 제시한 배틀즈의 예를 따라 갬블은 칼빈의 해석 방법을 ‘결핍’(defect)과 ‘지나침’(excess)의 ‘중도’로 정의한다. 여기서 갬블이 제공하는 도표²⁸에 의하면 결핍의 극단은 교황주의자이며, 지나침의 극단은 인문주의자이다. 그리고 멜랑히톤(Philipp Melancthon, 1497-1560)은 결핍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부처는 지나침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칼빈은 중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갬블의 주장이다.²⁹

김재성도 여기에 동의하며, 칼빈의 성경 주석 방법이 ‘결핍’과 ‘지나침’의 중간에서 균형 잡힌 해석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멜랑히톤의 『조직신학』(*Loci Communes*)이 지나치도록 간단하여 중요한 주제마저 건너 뛰어버렸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취한 방식은, 그러나(sic.) 짧게 압축 요약하기 보다는 부셔(M. Bucer)의 로마서 주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나 긴 주석방법이었다. 부셔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길게 인용하여 너무나 복잡하게 늘어놓았던 것이다. 칼빈의 주석방법은,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짧아서 필요한 성경

26) Richard C. Gamble, “Exposition and method Calvin” in *WTJ* 49 (1987): 153-165. 번역된, 이용숙 역, 『칼빈신학과 한국신학』(서울: 기쁜날, 2009), 194-196을 참조하라.

27) Gamble,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칼빈신학과 한국신학』, 197.

28) Gamble,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칼빈신학과 한국신학』, 197.

29) Gamble,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칼빈신학과 한국신학』, 194-197와 한국 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제 2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13을 참조하라.

의 가르침을 미쳐 다 설명하지 못하는 오류를 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길어서 내용의 핵심을 놓치기 쉬운 방법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한 균형 잡힌 안목에서 나온 것이다.³⁰

헤르만 바우크(Hermann Bauke)의 주장을 따라, 배틀즈,³¹ 암스트롱(Brian Armstrong)³²처럼, 칼빈의 신학에서 모든 것에 근원으로 작용하는 중심 교의나 근본적 사상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³³ 한 예로,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G. Armstrong)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칼빈에게 있어서 중심 교의를 찾으려는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하나 혹은 몇 개의 중심 교의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합의점에 도달 할 수 없다... 칼빈이 논하는 모든 신학적 주제 안에는 항상 양 측면, 양 극단, 두 개의 변증적이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이 있다.³⁴

박경수는 여기에 대해 “칼빈의 신학이 하나의 중심사상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닫힌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사상에 근거하여 균형을 잡고 있는 체계라는 의미”라고 말한다.

30) 김재성, “칼빈 신학의 구조적 특성(II)”, 『신학정론』 12/2 (1994): 393f.

31) Ford Lewis Battles, “Calculus Fidei,” ed. Richard Gambl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195-221.

32) Brian Armstrong, “*Duplex cognitio Dei*, or The Problem and Relation of Structure, Form, and Purpose in Calvin's Theology” in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Edward A. Dowey Jr.*, ed. Elsie McKee & Brian Armstro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89): 135-151.

33) Randall C. Zachman,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the shape of his writings and though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78.

34) 박경수, “칼뱅의 통전적 신학방법론, *Via Media*” 『장신논단』 34 (2009): 39 참조.

이러한 칼빈에게 있어서 그의 신학을 표현 혹은 포괄할 수 있는 칼빈의 신학방법으로 기독교강요의 영어 번역자인 배틀즈는 ‘중도’를 제시했다. 배틀즈에 의하면 칼빈은 양극단적 신학 입장 사이에서 중도의 길을 걸었다.³⁵ 이처럼 칼빈의 해석 원리의 하나로 중도적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박경수와 김재성, 안인섭이 있고 해외에는 부스마와 배틀즈, 갬블 등이 있다. 먼저 박경수는 “칼빈의 통전적이며 중도적인 신학을 고려할 때, 개혁신교회의 후예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상만을 전부라고 고집하면서 집착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며, 칼빈의 중도 신학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칼빈이 추구한 사상은 ‘이것이냐 저것이냐’(either A or B)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 사이에’(between both A and B) 있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며, 칼빈은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도 어느 하나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둘을 동시에 이야기 한다.³⁶

즉, 칼빈은 인문학적 소양과 성서의 계시 모두에 관심을 가진 중도의 신학자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진정한 신학적, 해석학적 유산은 통합과 중도와 일치라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논문인 “칼빈과 르네상스 인식의 위기”(Calvin and the Renaissance Crisis of Knowing)에서, 윌리엄 부스마는 칼빈의 인식 이론을 조사하면서, 칼빈의 성서해석 방법론은 그의 인문주의적 배경, 신학방법론, 그

35)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제 2집, 81.

36) 박경수, “칼빈이 추구한 사상은 ‘통합 · 중도 · 일치’”, 「제 6회 춘계신학강좌」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04.). 다음 기사를 참조하라.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1624> (2009.04.02. 접속).

리고 인식 이론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³⁷ 부스마는 칼빈이 성서해석에 있어서 “증립적” 방법론이 바로 “성서적” 방법론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의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스마는 칼빈의 요한복음 18:38³⁸에 대한 주석을 분석하면서, 칼빈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철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인문주의로 치우치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치우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성경이 쓰일 당시의 청중들을 고려하면서 주석을 한 것이 보인다고 주장한다.³⁹

IV. 이중개념주의: 문자적 해석과 교리적/비유 해석 사이에서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96~430)의 믿음에 대한 교리는 칼빈도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그의 칭의 교리는 흠잡을 곳이 없지만, 그의 성서 해석 방법은 너무 교리적이며 장황하여 칼빈은 그의 해석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어거스틴이 한 말 “성서의 해석은 교회의 믿음의 규범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서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것에 일조 했다고 하여 칼빈은 그의 해석을 거부한다.⁴⁰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해석은 칼빈의 해석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이를테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Scriptura sui ipsius inter-*

37) William J. Bouwsma, “Calvin and the Renaissance Crisis of Knowing” 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17/2 (1982): 190-211.

38)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개역한글, 요한복음 18장 38절)

39) 안명준 외, 『칼빈신학과 한국신학』 (서울: 기쁜날, 2009), 190f.

40) 안명준, 『칼빈의 성경 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31-34 참조.

pres) 성경 자증의 원리(self-authentication)나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표어는 칼빈의 해석 방법과 일치한다. 하지만 지나친 문자적 해석과 교리적 해석으로 칼빈과 입장을 달리했다. 칼빈과 루터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만찬 교리일 것이다. 루터는 여기서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다(Finitum capax infiniti)’는 공재설(共在說, consubstantiation)⁴¹⁾을 주장하고, 칼빈과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는 ‘무한이 유한을 담을 수 없다(Finitum non capax infiniti)’고 하여 영적 임재설(pneumatic presence)과 기념설(memorialism)을 각각 주장하게 된다.⁴²⁾ 이것은 결정적으로 성경 해석 방법론의 차이이다. 루터는 비유나 은유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만찬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한 것이고, 칼빈은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로 해석을 하려고 한 것이다.⁴³⁾ 칼빈은 루터가 지나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의 경향으로, 믿음의 유비(the analogy of faith)에 의한 교리적 해석(proof-texting)으로 치우쳤다고 본다.⁴⁴⁾ 그래서 칼빈은 성만찬론에 있어서 루터의 공재설과 츠빙글리의 기념설 사이에서 중도 신학방법론에 입각하여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며 그 둘을 중재하고자 했다.

칼빈은 역사상 최고의 성경 해석자 중 하나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는 은

41)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化體說, Transubstantiation)은 사제의 축성으로 "성찬식에서 거행하는 빵과 포도주의 겉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그 본질적 요소들의 실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며, 루터의 공재설은 사제의 축성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의 본질과 함께 공동으로 결합되어 존재한다."는 말이다. Linden J. Debie, *Speculative Theology and Common Sense Religion: Mercersburg and the Conservative Roots of American Religion* (Eugen,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08), 21.

42) 안명준, 『칼빈의 성경 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41-49.

43) 칼 바르트는 이점에 대해 칼빈이 오시안더(Andreas Osiander, 1498-1552)의 비유해석을 비판하면서 칼빈 자신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한다.

44) 또한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서 해석을 하는데 반하여 칼빈은 이것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했다. 안명준, 『칼빈의 성경 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48f.

유해석을 거부한다. 칼빈은 오리겐을 대표로 들며 그가 성경을 뒤틀어 해석했다고 비판한다. 칼빈은 성경의 기독교적 특성과 문법적 역사적 해석방법 그리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유추해서 해석하기보다 성경 본문 자체 내에 있는 해석(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해석)을 하며, 성령의 조명을 강조하는 균형 잡힌 예표론자(balanced approach to typology)이다.⁴⁵ 당시의 다른 신학자들에게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칼빈의 해석 방법 중의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의 조명에 의한 해석(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이다. 칼빈의 해석은 교회의 권위를 성서보다 높이 두는 것을 거부하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문자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비유해석도 하였다. 그리고 교리적인 해석이나 신학적 전제를 놓고 그것을 증명하려는 연역적 해석을 거부했다.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중심 사상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칼빈에게 있어서 중심 사상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칼빈의 중심사상으로 예정론, 기독교론,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진정한 칼빈의 중심 사상이라는 데에 있어서 좀처럼 일치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에서 오리겐을 자주 등장시키며,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지나친 알레고리적 해석을 중도적 해석 원리에 입각한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한다. 하나는 문법적-역사적 해석원리에 입각한 예표론적 해석이며, 또 하나는 간결하고 용이한 방법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득이 되게 하는 신학적 방법이다. 이것으로 그는 인문주의의 철학적 방법이나 로마가톨릭의 알레고

45) Roy B. Zuck ed., *Basic Bible Interpretation* (Springs: Donald Campbell, 1991), 47.

리적 방법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변증법적 해석 방법으로 양 극단의 갈등을 중재하는 종합적 대안을 제시한다. 한 예로, 성만찬 교리에서 칼빈은 루터와 츠빙글리의 차이를 중재한다.

박경수는 칼빈의 신학 저변에 깔려 있는 중도(Via Media)가 바로 칼빈의 신학적 해석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앞뒤, 좌우 그리고 위아래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중간의 좁은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앞뒤로는 로마 가톨릭과 재세례파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중간의 길을 택했고, 좌우로는 성만찬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서 중도를 택했으며, 위아래로는 은유적 해석과 인문주의적 해석 사이에서 서 있었던 것이다. 박경수는 칼빈이 보수적 로마 가톨릭과 급진적 재세례파가 가졌던 관계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달랐던 관계에서 칼빈의 신학방법론이 통합적이며 중도적이라는 사실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칼빈의 창조성은 루터와 츠빙글리, 부처, 심지어 가톨릭주의자들과 재세례파 진영의 사람들의 사상까지 모두 흡수하고 그것들을 자신만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융합시키는 데 있었다.”⁴⁶ 데이비드 푸켓(David Pucket)도 『칼빈의 구약성서 주석』이라는 책에서, 칼빈이 “유대교적인 해석”과 “기독교적인 해석” 사이에서 “중도적 성경 해석 방법론”을 자신의 신학방법으로 삼았다고 주장한다.⁴⁷ 16세기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집단 간의 갈등 속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을 관통할 수 있는 표현, 혹은 칼빈의 신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그것은 중도(Via Media)일 것이다.

칼빈은 문자적 해석에 치우친 루터나 알레고리적 해석에 치우친 오리겐의 해석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양비론적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칼빈도 때로는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며, 때로는 예표론적 해석을 함으로써 교

46) 박경수, “칼뱅의 통전적 신학방법론, Via Media” 「장신논단」 34 (2009): 61.

47) David L. Pucket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5).

리적/은유적 해석을 하는 양시론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성만찬에 있어서도 루터 입장에서 보기에 칼빈의 성만찬론은 츠빙글리의 기념설과 가깝다고 여겨질 소지가 있으며, 츠빙글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루터의 공재설과 가깝다고 여겨질 소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에, 칼빈의 중도적 성경해석 방법은 레이크오프가 말하는 이중개념주의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칼빈은 때로는 우파적이고 때로는 좌파적인 입장을 취한다기 보다는, 윌리엄 부스마의 말처럼, “대립적인 충동들 사이의 일종의 변증”(Calvin a kind of dialogue between antithetical impulses)이 바로 칼빈의 신학 방법이다.⁴⁸ 그래서 칼빈의 중도적 신학방법은 이중개념주의라기보다는 개념혼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V. 복잡성의 중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중지론과 지속론 사이에서

워필드(B. B. Warfield)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부르면서, 신학에 대한 칼빈의 가장 위대한 기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교리인데, 그의 성령론의 성격은 구원론적이라고 하였다.⁴⁹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로 보는 데에 대부분의 학자들도 동감하고 있다. 황승룡은 워필드의 이러한 주장에 부연하여 ‘당시 역사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칼빈의 성령관과 떼어 수 없는 그의 중도적 해석 방법이 나온다.’고 말한다. 황승룡에 의하면, 칼빈은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가톨릭과 급진 종교 개혁자들 사이의 중도에서 성령론을 정립하면서도 루터나 츠빙글리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성령론을 취급

48) William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4.

49) 이은선 “칼빈의 성령론”, 『한국개혁신학』 2 (1997): 310.

하였다.”고 본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었고, 재세례파는 성경과 분리된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⁰ 일반적으로 칼빈은 혁명적인 재세례파들과 지배적인 가톨릭 세력 사이에서 중도의 길을 택했다. 칼빈은 재세례파 혁명주의자들과 대조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시민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의 『기독교강요』를 기록했다.⁵¹

존 칼빈의 성령 은사론에 대해서는 그가 중지론적 입장이었다는 것이 후속 연구자들 가운데에 지배적이다. 칼빈의 복잡성은 그를 중지론자로 볼 수도 있고 지속론자로 볼 수도 있게 한다. 칼빈의 성령 은사론에 대한 칼빈 연구자들의 후속연구보다 그의 주요 저작들인 『강요』와 『주석』 연구를 통해 칼빈의 입장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A. 은사에 대한 중지론적 입장

칼빈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각종 방언 말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한다.

이 은사는 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후자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이 상대하여야 할 사람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통역자들은 외국어를 자국어로 번역하였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 언어를 힘든 노력을 통하여 혹은 그 말을 배움으로써 깨달은 것이 아니

50) 황승룡, 『성령론』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13.

51) Willem Van't Spijker, “The Kingdom of Christ According to Bucer and Calvin” in *Calvin and The State*, ed. P. de Klerk (Grand Rapids: Calvin Studies Society, 1993): 120-122. 한국칼빈학회(편), 『칼빈연구』 제 2집, 9에서 재인용.

라, 성령의 놀라우신 계시로 이 은사를 받은 것이다.⁵²

즉, 칼빈은 “방언 말함”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칼빈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주석에서 방언과 더불어 ‘통역’ 역시 언어라고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바울은 각종 방언 속에 여러 가지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그 언어들을 풀이하는 은사 두 가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각각 서로 별개의 은사이다. 왜냐하면 때때로 많은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가 알아야 하는 실체적인 교회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⁵³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칼빈은 방언과 통역 은사가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방언과 통역은 서로 별개의 은사이고 전자가 후자에 선행한다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온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며 다소 모호하게 주석한다.⁵⁴ 하지만 『기독교강요』 4권 19장 18절에서, 칼빈은 “병 고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초대교회 때는 있었지만, 현재는 중지된 ‘일시적인 은사’(temporary gift)였다고 분명히 밝힌다.

병을 고치는 은사는 다른 기적들과 같이 주께서 한동안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그 치유의 은사는 새로운 복음 선포가 영원히 놀라운 일이 되도록 하

52) 존 칼빈, 『신약 성경 주석』 제 8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359.

53) 칼빈, 『신약 성경 주석』 제 8권, 371.

54) 칼빈, 『신약 성경 주석』 제 8권, 358.

기 위해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때에 사도들의 손으로 나눠주신 권능을 위해서는 도유가 하나의 성사였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만, 지금은 도유와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을 나눠주는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⁵⁵

부연하여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방언 통역과 병 고침 은사가 지금은 중지되었다고 기록한다.

고린도전서에서(고전 12:28)는 다른 직분들을 능력, 병 고치는 은사, 통역, 다스리는 것, 구제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가운데서 두 가지는 일시적인 것이며 길게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하겠다. 그러나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 두 가지는 영구적인 것이다.⁵⁶

B. 은사에 대한 지속론적 입장

앞에서 보는 것처럼, 칼빈은 방언과 통역에 관하여 예배와 관련시키면서 방언을 일종의 언어로 이해했다.⁵⁷ 하지만, 바로 다음 장(page)에서 칼빈은 방언을 언어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며, 신자에게서 열망과 열정이 폭발하듯 하며 단순한 말의 반복 혹은 손과 몸의 떨림을 수반한다고도 표

55) John Calvi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 1994), 4권 19장 18절을 참조하라. (앞으로는 *Inst.*라고 약자로 쓰고, 권, 장, 절을 사용할 것이다. 예, 4, 19, 18.).

56) 칼빈, 『기독교 강요 下』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68. (제 4권 3장 8절).

57)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조금도 거침없이 방자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해괴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사도의 솔직한 비난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외국어로 장구한 기도를 고고하게 드리지만, 그 말의 뜻은 자신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칼빈, 『기독교 강요 中』, 467. (제 3권 20장 33절).

현한다.⁵⁸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그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전 14:15)고 말하였다. “영”이란 말은 방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능력을 받고 방언과 지성 즉 이해력을 분리함으로써 은혜를 남용하였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공중 기도에서나 사기도에서나 이해력을 동반하지 않은 말은 하나님께서 심히 불쾌하게 여길 것이라고 느낀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은 열렬한 생각으로 불붙듯 하여 방언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해야 한다.

칼빈은 더 나아가,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단순한 말의 반복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이는 초대교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라고 본다.

사기도를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예외가 있다면 마음속에 감동되는 힘이 부족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압도적이어서 자연스럽게 방언의 행동이 일어날 때이다. 가장 훌륭한 기도도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느낌이 격동된 때에 방언이 말로 터져 나오며 다른 지체들은 어떤 동작을 하게 된다. 한나가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다는 것도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삼상 1:13). 모든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항상 하는데, 그런 때에 그들의 기도는 단편적인 말로 되어 폭발한다.⁵⁹

58) 칼빈, 『기독교 강요 中』, 468. (제 3권 20장 33절).

59) 칼빈, 『기독교 강요 中』, 468.

『기독교강요』 3권 20장에서 칼빈은 기도가 “영속적 신앙의 연습”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33절에서는 한나의 기도를 묘사하며, 방언을 언어가 아닌 ‘다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표현된 기도라고 기술한다.⁶⁰ 여기에 대하여,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도 로마서 8장 26절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를 주석하면서, 방언에 대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게 되는 언어를 초월하는 기도’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계심에 틀림없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토설하는 탄식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탄식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그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감화하시기 때문이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되 이 같은 기도들이 간절한 까닭에 하늘에까지 상달되도록 해주신다...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내적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않는 한, 아무도 자기 스스로는 단 한 마디의 기도도 미리 생각해 낼 수가 없는 것이다.⁶¹

루터도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여, 『로마서 주석』에서 같은 구절을 주석하면서, ‘언어의 형태를 뛰어넘는 방언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있었다.’고 본다.

60) 칼빈, 『기독교 강요 中』, 467f.

61) 존 칼빈, 『신약 성경 주석』 제 7 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263.

이것들은 아무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기도들이다. 탄식이 너무도 깊어서,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 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라는 시편 38:9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도들을 바르게 보시고 제대로 알아들으실 수 있다.⁶²

이러한 칼빈과 루터의 방언 이해를 종합해보면, ‘은사로서의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언어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비언어의 형태일 때도 있으며, 이는 초대교회 시대에만 국한된 은사가 아니라, 구약시대로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은사이다.’

C. 은사에 대한 온건적 인정론

앞에서 본 첫 번째 증거들이 개혁주의 주류 신학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까닭에, 칼빈은 일반적으로 은사 중지론자(cessationist)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칼빈은 초대교회에만 해당되었던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이다⁶³. 하지만, 앞의 두 번째 증거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칼빈은 방언을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언어와

62) 마틴 루터, 『루터의 로마서주석』,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162.

63) “John Calvin made famous the ideology ‘Cessationism’-Cessationists teach that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the Gifts of the Spirit have ceased(and or no longer in operation). This was only given for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in approximately A.D. 33...Calvin believed that in the early Church the evidence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was ‘speaking in tongues.’” Twyman Preston Joyner, *His Mighty Word of Power: A Theological Apologetic Bible Study Aid* (Bloomington, IN: WestBow Press, 2012), 페이지 수 없음. 특별히 6장을 보라.

비언어를 포함한 기도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은사'라고 본다. 따라서 칼빈의 성령 은사론은 '온건적 지속론자'(mild continuationist)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⁶⁴

이러한 칼빈의 은사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 그를 '복잡성의 중도'를 표방하는 이중개념주의자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한 편으로는, 성령의 은사는 초기 신약 교회에만 해당되었으며 지금은 중지되었다고 보는 반면,⁶⁵ 다른 한 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이라고 했으니 말이다.⁶⁶ 이처럼 다소 모호하고 복잡해 보이는 칼빈의 성경극중주의 방법론에 대해, 칼빈은 스스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나오는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지식이란 거룩한 일들을 깨닫게 하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혜는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분별력은 때때로 그들 사이에 중간적인 위치를 취하게 하며, 따라서 그것은 지식을 어떤 실제적인 목적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⁶⁷

그래서 칼빈의 신학방법으로서의 중용은 실용을 추구한다. 칼빈의 이러한 극중주의 방법론은 양극단의 종합과 제 3의 길을 추구하는 변증법적이며 실용적인 것이다.

64) Clay Quarterman, *Retooling the Church : A Spiritual Gifts Toolkit* (Bloomington, IN: Xlibris Corporation, 2012), 33f.

65) *Inst.* 4, 3, 8.

66) *Inst.* 4, 11, 4.

67) 칼빈, 『신약 성경 주석』 제 8 권, 357f.

IV. 마무리

지금까지 칼빈의 성경극중주의 신학방법론을 다루었다. 칼빈의 이러한 방법론은 이중개념주의적 복잡성의 중도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칼빈은 성만찬, 국가론,⁶⁸⁾ 은사론 등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 칼빈의 이러한 극중주의 방법론은 때로는 (좌측과 함께)중립에서 우측과 걱정적으로 싸웠고 때로는 (우측과 함께)중립에서 좌측과 걱정적으로 싸우는 것을 말한다. 칼빈은 상대의 단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장점을 흡수하고자 하는 비판적 수용의 자세도 보였다. 이러한 칼빈의 이중개념주의적 복잡성의 극중주의는 말솜에 그 중심을 철저히 두려고 했던 것이지 세상의 좌우 진영 ‘정 가운데’에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본 연구는 칼빈의 신학이 중도라는 주장을 단순히 부연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하고자 함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 둘을 뛰어넘어 칼빈주의 신학이 중도주의라는 주장에 대한 옹호론과 비판론을 종합하고자 했다. 그래서 칼빈에게서 분명하게 발견되는, 하지만 다소 모호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그 중도주의적 신학방법을 더 구체화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치학적 용어인 극중주의라는 말을 차용하여 성경극중주의라는 새로운 개념(개념혼성, conceptual blending)으로 칼빈의 신학방법을 표현했다. 중도주의는 그 모호성으로 인하여 이중개념주의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도에 대한 비판적 용어들을 성경극중주의의 장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차용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말솜에 그 중심을 두지 못하고 신학적 성향과 정치적 성향을 서로 혼

68) 칼빈은 국가관에 있어서도 로마 카톨릭과 재세레파 사이에서 중도적인 노선을 선택했다.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다. 안인섭,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연구 -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과 아브라함 카위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30 (2011): 207; 219.

동하여 이를 등치시켜 오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가, 말씀에 뿌리 깊이 중심을 내리고, 때로는 우측에게 선지자적 사명으로 비판을 하며, 때로는 좌측에게 제사장적 비판을 하는 칼빈의 성경극 중주의가 한국 개신교 교계와 신학계에 뿌리내리게 할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여호수아 1장 7절, 개역한글)

참고문헌

- 김재성. “칼빈 신학의 구조적 특성(Ⅱ)”. 『신학정론』 12/2 (1994): 379-415.
- 김제완. “이중개념주의’에 도전하는 ‘복잡성의 중도’”. 『프레시안』 (2015. 09.28.).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0061. 2018.03.12. 접속.
- 박경수. “칼뱅의 통전적 신학방법론 Via Media”. 『장신논단』 34 (2009): 39-65.
- _____. “칼빈이 추구한 사상은 ‘통합 · 중도 · 일치’”. 『제 6회 춘계신학강좌』. 장로회신학대학교, 2009.04.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1624>. 2009.04.02. 접속.
- 안명준. 『칼빈의 성경 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안명준 외. 『칼빈신학과 한국신학』. 서울: 기쁜날, 2009.
- 안인섭.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연구 -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과 아브라함 카위퍼(Abraham Kuyper: 1837-1920)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30 (2011): 183-229.
- 윤성이.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4 (2006): 163-182.
- _____. “한국 시민사회의 갈등과 담론의 왜곡”. OUGHTOPIA 22/2 (2007): 51-71.
- 이은선. “칼빈의 성령론”, 『한국개혁신학』 2 (1997): 310-351.
- 황승룡. 『성령론』.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칼빈, 존. 『기독교 강요 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_____. 『기독교 강요 下』.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_____. 『신약 성경 주석』 제 7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 _____. 『신약 성경 주석』 제 8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 Armstrong, Brian. “Duplex cognitio Dei, or The Problem and Relation of Structure, Form, and Purpose in Calvin’s Theology” in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Edward A. Dowey Jr.*. Ed. Elsie McKee and Brian Armstrong.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89. 135-151.
- Battles, Ford Lewis. “Calculus Fidei”. Ed. Richard Gambl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195-221.
- Bouwisma, William J.. “Calvin and the Renaissance Crisis of Knowing” in *Calvin Theological Journal* 17/2 (1982): 190-211.
- _____.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Burns, James MacGregor & Sorenson, Georgia J.. *Dead Center: Clinton-Gore Leadership and the Perils of Moderation*. New York: A Lisa Drew Book, 1999.
- Calvin, Joh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 1994.
- Dayton, Donald W.. “Some Doubts About the Usefulness of the Category ‘Evangelical’” in *The Variety of American Evangelicalism*. Eds. Donald W. Dayton and Robert K. Johnston. Downers Grove, IL: IVP, 1911.
- Debie, Linden J.. *Speculative Theology and Common Sense Religion: Mercersburg and the Conservative Roots of American Religion*. Eugen,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08.

- DeSilva, David Arthur. "Seeing things John's way: rhetography and conceptual blending in Revelation 14:6-13" in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8/2 (2008): 271-298.
- Disch, Lisa Jane. *The Tyranny of the Two-Party Syste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 Gamble, Richard C.. "Exposition and method in Calvin" in *WTJ* 49 (1987): 153-165. 이용숙. "칼빈의 해석과 방법론". 『칼빈신학과 한국신학』. 서울: 기쁜날, 2009. 187-198.
- Grenz, Stanley J.. *Revisioning Evangelical Theology: A Fresh Agenda for the 21st Century*. Downers Grove, IL: IVP, 1993. 전대경 역. 『복음주의 재조명』. 서울: CLC, 2013.
- Hoefer, Richard. "Social Welfare Policy and Politics" in *Comprehensive Handbook of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Volume 4: Social Policy and Policy Practice*.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8.
- Joyner, Twyman Preston. *His Mighty Word of Power: A Theological Apologetic Bible Study Aid*. Bloomington, IN: WestBow Press, 2012.
- Lakoff, George. *Don't think of And Elephant*. White River Junction, Vermont: Chelsea Green Publishing, 2014.
- Luther, Martin.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Trans.: Mueller, J. Theodore.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4. 박문재 역.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Parsons, Stephen. "Understanding the mind of the conservative Christian:

- the work of George Lakoff” in *Modern Believing* 55/3 (2014): 271-282.
- Puckett, David L.,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5.
- Quartermann, Clay, *Retooling the Church : A Spiritual Gifts Toolkit*, Bloomington, IN: Xlibris Corporation, 2012.
- Rasmusson, Arne, “Science as salvation: George Lakoff and Steven Pinker as secular political theologians” in *Modern Theology* 28/2 (2012): 197-228.
- Selderhuis, Herman J., *John Calvin: A Pilgrim's Lif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9. 조송희 역. 『칼빈』, 서울: 대성닷컴, 2009.
- Spijker, Willem Van 't, “The Kingdom of Christ According to Bucer and Calvin” in *Calvin and The State*, Ed., P. de Klerk, Grand Rapids: Calvin Studies Society, 1993, 120-122. 한국칼빈학회 편집. 「칼빈 연구」 제 2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9에서 재인용.
- Thaden, Robert H. Von Jr., “Guiding socio-rhetorical commentary with conceptual integration theory (blending theory)” in *Conversations with the Biblical World* 31 (2011): 184-203.
- Thomas, Robert, “Idea analysis of algebraic groups: a critical comment on George Lakoff and Rafael Núñez's Where mathematics comes from” in *Philosophical Psychology* 15/2 (2002): 185-195.
- Wassell, Blake E. & Llewelyn, Stephen R., “Fishers of Humans'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and Conceptual Blending Theory” i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3/3 (2014): 627-646.

Zachman, Randall C..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the shape of his writings and though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6.

Zuck, Roy B.. Ed.. *Basic Bible Interpretation*. Springs: Donald Campbell, 1991.

Abstract

Biblical–Radical Centrism as John
Calvin’s Theological Method:
In between Biconceptualism
and Complexity of *Via Media* Traversing
between Gray Fallacy and Bothsidesism

Jun, Dae Kyung

| Pyeongtaek University, Systematic Theology |

This article suggests Biblical-Radical Centrism as John Calvin’s theological method which falls in line with a stream of Evangelical theological method. It is to clarify that Calvin’s theological method is Biblical-Radical Centrism. First, political terms ‘biconceptualism,’ ‘complexity of *via media*,’ and the cognitive linguistic term, ‘conceptual blending’ are examined. Then, Calvin’s biconceptual Biblical Hermeneutical Radical Centristic method which is located in between literal and allegorical interpretation. Lastly, Calvin’s moderate interpretation of ambiguity and complexity on

Spiritual gifts is dealt. Thus, it is argued that Calvin's *via media* theological method is Biblical-Radical Centrism, which firmly establishes its center of gravity as the word of God.

It is obvious that Calvin's Biblical-Radical Centrism can be possibly seen as a biconceptual complexity of *via media*. Calvin stands in the middle for his understandings on sacrament, government, Spiritual gifts, etc. Calvin, with his radical centrism method, whereas standing in the middle, sometimes fought with the left against right and other times with the right against left. In the meanwhile, as he was criticizing both, he was critically embracing the two. This Calvin's biconceptual radical centrism was not just seeking to stand in the middle but to stand on the Word firmly.

This paper's research is neither just a reiteration that Calvin's theological method is *via media*, nor to refute it. Rather, it is to embrace and synthesize both the optimism and the criticism of his *via media* and go beyond them. Henceforth, surely be found, but yet ambiguous *via media* theological method is to be explained with more. In order to do that, we could adopt the political term, radical centrism, creating a new concept by conceptual blending, Calvin's theological method, Biblical-radical Centrism, is to be delineated. *Via media* is often criticized as biconceptualism for its ambiguity. In this article, adopting these somewhat critical concepts to shape up and reinforce the method of Biblical-radical centrism. Today, in Korea Society, it is quite often mistakenly regarded as a theological tendency as a political inclina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ttempts the prime water that Calvin's Biblical-radical centrism would be firmly rooted down for the Christian and theological environment which then can prophetically criti-

cize the right while correcting.

[Key Words]

Via Media, Calvin, Theological Method, Radical Centrism, Biblical-Radical Centrism, Conceptual Blending, Biconceptualism.